근대 작문의 계보와 이태준의 『문장강화』*

구자황**

‖ 차 례 ‖

Ⅰ. 들어가며
Ⅱ. 『문장강화』의 체재와 근대 작문의 전통
Ⅲ. 『문장강화』의 특장점과 서술 전략
Ⅳ.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글의 기본 관심사는 『문장강화』의 텍스트 체재와 특장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컨텍스트 탐색이다. 이태준의 『문장강화』(1940)는 근대 작문의 형성 전반에 걸쳐 제국과 식민지 간의 치열한 언어·문화적 횡단과 경합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적 텍스트이다. 이 글에서는 이태준의 조선어 글쓰기가 한국 근대 작문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과 양상을 통해 한국 근대 작문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왔듯, 『문장강화』는 일본의 작문서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본 근대 작문의 중역(重譯)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준의 『문장강화』는 일본 근대 작문의 방법(학)과 각종 체재의 참조 아래 조선어 문장 수립을 독자적으로 설계해갔다는 점이 인정된다. 예문의 구체성과 방법의 실제를 구현한 『문장강화』는 식민지 시대의 공교육이 조선어 문장의 확립과 그 문학적 표현 규범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 조선어 문장의 준거와 성취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저작이나 기존의 독본과는 구별되는 지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태준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3091).

**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학부 교수

『문장강화』는 기존의 문학사적 평가 외에 언어·문화적 횡단과 경합의 장에서, 특히 한국 근대 작문의 계보와 근대적 글쓰기의 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글에서는 『문장강화』의 특장점 및 서술전략으로 구체성과 실제성을 들었다. 구체성은 일반 독자층에게 읽는 문범에서 쓰는 요령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독본이 텍스트의 나열만으로 전달해주던 행간의 의미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문장강화』의 주된 서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서술 전략은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작문 과정의 이해를 돕고 요령 습득의 지름길로 안내함으로써 『문장강화』의 대중성을 공고히 하였다. '퇴고' 관련 논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오늘날의 글쓰기 교육에서 전통적인 수정 전략으로 채택할 만큼 자세하고 적실한 논의 수준을 보여준다. 실제성은 기존의 독본과 달리 형식-언어의 작문학적 배치와 설명을 전경화(前景化)하고, 내용-주제의 문학적 배치를 후경화(後景化)하는 가운데, 편지, 기사, 추도문 등의 실용적 양식은 물론 띄어쓰기, 문장 부호에 이르는 디테일을 제공한다. 이것은 텍스트의 곳곳에 개성과 교교불군(矯矯不群)의 문학적 글쓰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일반 독자들의 실제적 쓰기 욕망 너머에 '문학중심의 작문강화'를 배치함으로써 조선 문인들의 숨은 욕망을 성취하고자 했던 『문장강화』의 서술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태준의 『문장강화』는 신문학의 물질성을 토대로 성취한 근대 조선어 글쓰기의 결절점(結節點)을 보여준다. 동시에 근대 작문과 문학이 한 뿌리의 두 가지로 추구했던 사회적·문화적 실천의 텍스트이다. 더욱이 해방 전후를 관통하면서 이 텍스트의 계보학적 위상과 의미는 증폭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 『문장강화』가 근대 초기의 다양한 독본과 교과서 및 작문서를 상업적 목적으로 집대성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 단행본 텍스트 안에서 논리적 모순에 봉착해 있다는 비판 너머에 놓인 의미를 결론으로 강조하였는바, 그것은 『문장강화』가 잡지 연재에서 비롯되었으나 단행본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으며, 산문(散文) 본위의 조선어 문장 작법을 초점화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전의 독본(讀本) 모형을 정교하게 다듬고 풍부하게 확장함으로써 근대 작문의 '전통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근대 작문, 교과서, 독본(讀本), 문장강화(文章講話), 수사학(修辭學), 이태준(李泰俊)

Ⅰ. 들어가며

이 글의 목표는 한국 근대 작문에 대한 계보를 탐색하는 것이다. 근대 작문은 흔히 떠올리는 작문, 작법에 관한 책 외에도 독본, 강화 등의 형태를 포함하며, 넓게는 교과서까지 포괄한다. 이 다양한 작문의 상징체계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매체 환경, 그리고 이념, 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다기한 형태로 분화되었고, 기능을 전환시켜 왔다. 그러나 '국어'의 위상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근대 작문이 수립된 특수성에 비춰보면, 민간 독본 및 강화 텍스트는 '교과서 밖의 교과서'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교과서와 교과서 밖, 제국과 식민지 간 언어·문화의 장에서 횡단과 경합을 보여주는 텍스트 모두가 근대 작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의 기본 관심사는『문장강화』의 텍스트 체재와 특장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컨텍스트 탐색이다. 이태준의『문장강화』(1940)는 근대 작문의 형성 전반에 걸쳐 제국과 식민지 간의 치열한 언어·문화적 횡단과 경합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적 텍스트이다. 이 글에서는 이태준의 조선어 글쓰기가 한국 근대 작문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과 양상을 근대 작문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미 충실한 연구사 검토가 존재하므로,[1] 이 글은 본론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혹은 남겨진 쟁점보다 그 너머를 지향할 것이다. 그간의 다양한 문학(사)적 접근과 달리『문장강화』를 근대 작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과 의미를 보강하고, 계보학적 위상

1) 문혜윤,「조선어 문장 형성 연구의 향방」,『상허학보』, 제42집, 2014.10. 문혜윤의 논문은『문장강화』에 대한 연구 자체를 대상으로 쓴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연구사가 총망라된 문혜윤의 논의를 선행 연구 검토로 대체하되, 그간의 연구가 이태준 문학의 이해를 도모하거나 이태준이 지향한 근대적 글쓰기의 의미에 집중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근대 작문의 계보와 전통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등을 가늠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문장강화』를 둘러싼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에서 강화의 형식으로 구축되는 '작문 전통 및 이론'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며,『문장강화』에서 구현되는 체재와 실상을 계보학적으로 탐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로부터 오늘날 작문 교육 및 연구가 갖춰야할 확장적 지평과 새로운 해석의 공간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문장강화』의 체재와 근대 작문의 전통

이태준의『문장강화』(1940)는 일련의 체제에 맞춰 각 항목에 어울리는 텍스트를 선별・배치하고, 이를 독자에게 강의하듯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강화(講話)'의 서술 방식은 선별된 텍스트 자체를 제시하는 기존의 '독본(讀本)' 형태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근대 작문의 전통과 이론에서 보자면, 앙상한 형태의 독본류가 정교화의 논리와 이론적 전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강화의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문장강화』가 이태준의 일련의 문장론을 집대성한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잡지『중앙』(「글 짓는 법」, 1934.6~1935.1 총 8회)과『문장』(「문장강화」, 1939.2~1939.10, 총 10회)에 연재했던 내용을 근간으로 각종 문장 관련 논의를 묶은 것이 바로『문장강화』다. 그러나『문장강화』는 이전의 문장론을 상업적 목적으로 단순히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단행본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으며, 산문 본위의 조선어 문장 작법을 초점화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전의 독본 모형을 정교하게 다듬고 풍부하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근대 작문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강화』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제4강 각종 문장의 요

령>부터 <제8강 문체에 대하여>까지의 각론을 중심으로 1강, 3강, 9강의 총론적 내용으로 책 전체를 열고 닫는다. 총론은 잡지 연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각론의 설명과 예문의 양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예문' 혹은 '문례(文例)'로 부르던 것을 규범적 의미를 강조한 '문범(文範)'으로 지칭하고 본문 뒤에 별도의 목차까지 수록함으로써 총론-각론, 이론-실제, 강화-문범의 단행본 체재를 완성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문장강화』가 일본의 독본 및 강화를 참조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2] 당시 언어·문화적 횡단과 경합의 장에서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거니와 실제로 이가라시 치카라[五十嵐力]의『文章講話』는 제목과 전반적인 체재, 실용적 글쓰기의 대한 인식 부분이 이태준의 저작과 유사하고,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文章讀本』이 보여주는 소설가로서 경험과 거기에서 우러나는 자신감과 풍부한 예증은 이태준의 서술 방식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그러나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태준의『문장강화』는 식민지 시대의 공교육이 조선어 문장의 확립과 그 문학적 표현 규범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 조선어 문장의 준거와 성취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저작이나 기존의 독본과 구별되는 분명한 지점을 갖고 있다.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보다 면밀한 논의는 이 글 밖의 것이고, 더욱이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므로 여기서는 목차를 통해 일련의 상호연관성을 보완하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되었거나 관련 있는 대표적인 것들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이재선,「개화기의 수사론」,『한국근대문학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69; 박진숙,「이태준의 언어의식과 근대적 글쓰기의 장(場)」,『한국근대문학연구』제23호, 2011; 이한정,「다니자키 준이치로의『문장독본』과 이태준의『문장강화』」, 상허문학연구회 발표문(미간행), 2013.11.

【표1】 이가라시 치카라〔五十嵐力〕, 『文章講話』(1908)[3] 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문장 기초편
  1장 총설/2장 사상의 명사/**3장 문의의 정확/4장 문의 명료**/5장 언표의 온건
  6장 문장의 순수/7장 문장의 온당/8장 문장의 파격
제3편 **문장 수식론**
  1장 사태 범론
  2장 사태 각론
  3장 수식론 결수
제4편 문장 조직론
제5편 **문장 정신론**
제6편 **문장의 종류 및 문체**
제7편 국문 연혁의 개요
제8편 문장의 품위 및 결론(이하 진하게 강조 - 인용자)

이가라시 치카라[五十嵐力]의 『文章講話』(1908)는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의 『新美辭學』(1902) 이후 조선 문단에 수사학적 분위기를 불어넣은 텍스트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태 각론'에서는 직유와 은유 등 문장의 의미, 구조, 배치 등에 기반을 두고 분류한 다양한 수사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서양의 수사학이 일본에 수용되면서 '문장 수식론'으로 축소되는 과정 및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태준의 『문장강화』를 비롯해 조선의 근대 작문의 전통에서는 작문 이론과 동시에 근대 수사학의 수용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표2】 사카이 도시히코〔堺 利彦〕, 『文章速達法』(1915)[4] 목차

제1장 **대체적인 마음가짐**
제2장 문법과 수사학
  문법/수사학/**문두,결말/비유/생략**/복선,조응

3) 이가라시 치카라[五十嵐力], 『문장강화』, 1908(1915-고려대 소장본).
4) 사카이 도시히코[堺 利彦], 『文章速達法』, 讀文社, 1915(講談社 學術文庫, 1982년 판).

제3장 문장의 종류
　지식적 글과 서정적 글/ 실용문과 미문
제4장 **문체**
　문체 변천의 역사/한어투/일어투/시문체(時文體)/언문일치/후문체(候文體)/자신만의 문체/사상과 형식
제5장 용어・용자・가나표기법
　용어/용자/가나표기법/주석/후리가나/구독/의문표,감탄표,인용어표/단락
제6장 **서간문**
제7장 **기사문**
제8장 논문
제9장 소설
제10장 최후의 한 마디

사카이 도시히코[堺 利彦]의『문장속달법』(1915)은 글쓰기의 기술적인 부분이 특화된, 당시 일본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린 문장입문서이다. 이태준의『문장강화』가 기존의 작문 교재나 독본과 달리 구체적인 서술과 요령, 방법, 기술 위주의 서술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점점 정교하게 발전해가던 대중적 작문서의 수용과 참조 때문이었다. 특히『문장속달법』은 <대체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장에서 '대체적'이라는 겸손한 수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작문에 관한 상세한 기본을 열 가지나 적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 담화와 문장>, <2. 전문가와 초보자>, <3. 진실을 써라>, <7. 알기 쉽게>, <9. 분명함・간결함・상세함>, <11. 퇴고> 등은『문장강화』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3】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文章讀本』(1934)[5] 목차

1. 문장이란 무엇인가?
　언어와 문장—언어의 효용/언어의 결점/언어와 문장의 구별
　실용적 문장과 예술적 문장--미문체/**운문과 산문**/미문의 조건/구어문/소설의 문장
　현대문과 고전문—구어체와 문어체/화(和)문조와 한(漢)문조/구어체의 결점/서간문/후문

5)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文章讀本』, 中央公論社, 1934.

(候文)
서양의 문장과 일본의 문장—서양문의 도입과 혼란/중국어오 일본어의 차이/우리 국어의 결점
2. 문장의 숙달법
문법에 얽매이지 말 것/**감각을 연마할 것**
3. 문장의 요소
용어/어조/문체/체재(활자,구두점,인용부호)/품격/함축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文章讀本』(1934)은 앞서 언급한 사카이 도시히코[堺 利彦]의 『문장속달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태준의 『문장강화』로 수렴된다. 다니자키는 근대 일본에서 '미사학(美辭學)'의 이름으로 유행하던 수사학적 기교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새로 수입된 서양 문물과 서양어 문장의 수입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어 문장 쓰는 일'에 주목하였다. 그가 다수의 문학 작품과 자신의 창작 경험을 활용해가면서 목표로 삼은 것은 일본어의 성격과 일본어 문장을 쓰는 마음가짐이었다. 특히 그는 책의 서문에서 "이 독본은 가능한 한 여러 계급의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으면 하는 목적에서 통속을 염두에 두고 썼"음을 밝히고, 학자나 문인들이 읽을 만한 책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조선어가 처한 상황과 운명은 달랐지만 이러한 다니자키의 마음가짐과 독자의 상정은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감안한 컨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선의 문인들에게 인기 있었던 기쿠치 칸[菊池寬]의 『文章讀本』(1937), 당시 총독부 도서관 대출 순위가 높았던 구메 마사오[久米正雄]의 『문장 짓는 법』(1937) 등은 이태준의 『문장강화』와 가장 유사한 체재를 보여주는 당대 저작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이러한 각종 체재의 참조물 아래 조선어 문장 수립을 독자적으로 설계해갔다는 점이다. 언어·문화적 횡단과 경합의 장에서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문학사 외에도, 작문학적 관점에서 우선 평가받아야할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표4】 기쿠치 칸〔菊池寬〕,『文章讀本』(1937)[6] 목차

서론
  새로운 문장
  문장은 인간 완성
  문장은 언어의 일종
문장 감상론
  문장에 있어서의 조자(調子)--평명한 문장/간결한 문장/딱딱한 문장
  명문과 미문--미문의 결과가 명문인가?/미문의 결점
  내용의 중요성--절실한 체험/독자적인 발견
  정비된 형식--설명 정확/묘사 정치/적확한 표현
문장 지도편
  문장 상달의 3요소
  감각의 연마
  관찰 훈련
  문장 짓는 방법--제재를 취하는 방식과 재료의 선택/단어 선택/문장의 체재/퇴고 면밀
서한문 지도편
결론

『문장강화』의 독자성이 조선어 문장의 특성과 당대 조선어 문장이 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문장강화』의 전통성은 근대 작문의 계보와 적층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태준의『문장강화』가 평지돌출적이라거나 획기적인 텍스트라는 과장은 피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히려『문장강화』야말로 신문학 30년의 물질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텍스트이며, 어문민족주의 계열의 조선어 문장론이 지녀온 근대 작문 전통을 내면화하고 수렴한 텍스트인 것이다.

이태준의『문장강화』는 이윤재의『문예독본』(1931)에 수록된 필자 그룹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독본'의 의미로 선별된 제재 가운데 시조와

6) 기쿠치 칸[菊池寬],『文章讀本』, 모던일본사, 1937.

근대시를 제외하고 나면 『문예독본』의 산문 제재를 '강화'의 형태로 확대・재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이태준이 『문예독본』의 제재 선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편 이윤재의 『문예독본』은 <한글 철자 일람표>를 부록으로 실었다. 이는 어학자이며 조선어학회의 회원이었던 이윤재의 궁극적 의도가 '문예'의 이름으로 '문학' 독본을 묶는 것 외에, 가장 대중적인 독물로 부각되던 문학작품을 조선어 문장과 표현으로 규범화하는 것에 두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이태준의 『문장강화』에 부록으로 실린 <문범 목차>는 단순히 저자와 작품목록을 소개할 목적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기자이자 소설가였던 이태준의 의도가 조선어의 문장과 표현이 성취한 텍스트를 <문범>이란 이름으로 더욱 강력하게 규범화하는 방식이자 장치였던 셈이다.

『중등조선어작문』(1928)은 조선어 교원단체가 검정을 목적으로 만든 중학교 작문 교재이다. 이 책은 배재학교 조선어 작문 교재와 판본이 유사한데, 여기에는 조선어 감상과 표현을 높이기 위한 수사학적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제재를 나열하고 '문례(文例)'를 덧붙이는 방식 외에 설명이 가미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책이 전체를 관통하며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 구체적 실감, 그리고 개성이다. 따라서 『중등조선어작문』은 작문 교재와 독본의 혼합적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선인 교원들이 추구한 교수학습목표가 단순한 의사소통 외에, 감상과 표현 능력, 나아가 비판적 문해력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작문 교재의 체재와 작문 교육의 전통은 『문장강화』가 이어받고 지향하는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 文章은 원래 자기의 감상을 文辭로 표현하는 것인즉 환언하면 즉 自己라 하는 그것을 文辭라는 기호에 의하야 표현하는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 우리가 고인의 문장을 볼지라도 혹은 평탄하고 혹은 기려하고 혹은 유원하고 혹은 우아하고 혹은 이지에 승하고 혹은 감정에 유하야 백인이면 백의 문장이 잇고 천인이면 천의 문장이 있는 것은 우리의 품격 또는 학식 또는 습속, 경우들이 각각 같지 아니함에 달린 것이며 또는 그 특유한 개성과 취미들이 같지 아니함으로써 문장도 자연 그 특유한 색채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문장이 만일 자기의 특유한 性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연히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려할진대 이는 眞所謂優孟의 衣冠에 불과하야 一分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문장을 쓰려하는 자는 그 여하한 제목임에 불구하고 모름지기 자기가 그 제목의 주인공이 되어 사상을 充分이 生發하여야 합니다.[7](현대어 표기 및 띄어쓰기-인용자)

물론『중등조선어작문』이 상정한 것은 학생 대중 독자들의 보통 문해력일 것이다. 그러나 작문을 통해 자아와 세계를 이해하는 주체적 작문론과 개성적 글쓰기를 운위하는 맥락이 분명한 것을 보면, 텍스트의 궁극적 목표가 '비판적 문해력' 나아가 '문학능력'까지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결합은 작문 교과서와 독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텍스트와 강화의 형태로 발전하거나 쌓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학교급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의 작문 교재로는 박기혁의『조선어작문학습서』(1931)를 들 수 있다.)

『문장강화』는 일본 독본 및 강화의 체재를 참조하면서도 조선어 문장에 관한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독자성,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다. 더욱이 근대 작문의 전통과 적층 속에서 신문학의 성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근대 조선어 문장론을 집성한 결정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문장강화』는 근대 작문의 전통과 계보를 이어받고 매듭지은 것으로 무턱대고 텍스트를 과

---

7) 조한문교원회, 구자황・문혜윤 편,『조선어작문학습서』, 경진출판, 2015(창문사, 1928) p.65, 제2권 6과 <자기를 표현할 것> 중에서.

장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문장강화』의 문학을 활용한 작문과 수사학의 융합적 가치마저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수사학이란 '무엇'을 말하고 쓸 것인가 보다 '어떻게' 말하고 쓸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고 할 때, 『문장강화』가 계승하고 확장한 작문 및 수사학의 범주를 형식주의나 미문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문학적 관점의 터널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문장강화』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문장 정신을 감안할 때, 『문장강화』에 드러나는 일종의 편향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조선의 현실에서 비롯된 『문장강화』의 작문에 미달하거나 때론 작문을 초과하는 지점을 놓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장강화』(1940)를 전후(前後)한 즈음에 오면, '문학'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사용'된다. 1938~1939년 사이에만 무려 7종의 문학전집이 출간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출판에서는 문학을 '전집' 형태로 묶어내고 있었고, 문학사에서는 '신문학사'를 전작 집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문장강화』 역시 문학을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문학적 유로(流路)를 모색하였는바, 이태준은 작문을 전경화(前景化)하는 방식으로 '조선어 문장 쓰기'를 밀고 나아간 것이다.

Ⅲ. 『문장강화』의 특장점과 서술 전략

이 글은 『문장강화』의 하드웨어가, 안으로는 근대 작문의 전통과 계보의 적층 속에서, 밖으로는 일본 독본 및 강화의 참조 속에서 갖추어졌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문장강화』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일련의 체제에 맞춰 구성된 각 항목들은 다른 어떤 독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이전의 작문 교과서보다 풍부한 예문과 실제 작품을 동원

한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이러한 구체성과 실제성을 보강한 이유는 뭘까? 잡지 연재 당시 이태준 문장론의 주된 독자층은 문학에 종사하는 이들이거나 소위 문청(文靑)으로 일컬어지는 문학 지망생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장 작법의 요령과 실제 사례가 대거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 독자층으로 대상을 넓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태준이 '문학'을 사용해 나아간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픈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들을 향한 발언이 절실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체성은 일반 독자층에게 읽는 문범에서 쓰는 요령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독본이 텍스트의 나열만으로 전달해주던 행간의 의미를 채워준다는 점에서『문장강화』의 주된 서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학습자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서술 전략은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작문 과정의 이해를 돕고 요령 습득의 지름길로 안내할 수 있었다.

『문장강화』에서 '퇴고'와 관련된 논의는 근대 작문 텍스트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여실히 증명해준다.[8]『문장강화』의 작문학적 의미가 배가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이태준의『문장강화』만큼 퇴고의 효용과 실제를 적실하게 다룬 사례는 근대 작문의 계보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8) 앞서 언급한 다니자키의『문장독본』에는 문장정신과 함축적 의미를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 '퇴고'라는 개념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기쿠치의『문장독본』에는 '문장 지도편'의 마지막으로 '퇴고'를 다루고는 있으나 이 말의 어원과 고사를 언급할 것일 뿐 퇴고의 사례와 실제 예문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룬 적은 없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당시 조선의 다른 작문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표6】 퇴고 예문

1 교문을 나선 제복의 두 처녀, 짧은 수병복(水兵服) 밑에 쪽 곧은 두 다리의 각선미, 참으로 씩씩하고 힘차 보인다. 지금 마악 운동을 하다 돌아옴인지, 이마에 땀을 씻는다. 얼굴은 홍분하여 익은 능금빛 같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웃음을 가뜩 담은 얼굴은 참으로 기쁘고 명랑해 보인다.(p.188, 이하 본문은 쪽수만 표시함 - 인용자)[9]
2 교문을 나선 제복의 두 처녀, 짧은 수병복(水兵服) 밑에 쪽 곧은 두 다리, 퍽 씩씩하다. 지금 마악 운동을 하다 돌아옴인 듯, 이마에 땀을 씻는다. 얼굴은 상기되어 익은 능금빛 같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웃음을 가뜩 담아 참으로 기쁘고 명랑해 보인다.(p.189)
3 (저쪽으로 사라지는 경우 제2고) 흰 돌기둥의 교문을 나선 푸른 수병복(水兵服)의 두 처녀, 짧은 스커트 밑에 쪽 곧은 두 다리들, 퍽 씩씩하게 걸어간다. 마악 운동을 하다 나선 듯, 책보를 들지 않은 다른 팔로들은 그저 뻗었다 굽혔다 해 보면서, 땀들을 씻음인지 이마를 문지르기도 한다. 귀까지 꽃송이처럼 피어 가지고 골목이 왁자하게 떠들며 간다.(p.192)
4 (이쪽으로 오는 경우 제2고) 흰 돌기둥의 교문을 나온 푸른 수병복(水兵服)의 두 처녀, 얼굴이 모두 능금처럼 이글이글하다. 마악 운동을 하다 나오는 듯 이마에들 땀을 씻으며 그저 숨찬 어조로 웃음 반, 말 반 떠들며 온다. 짧은 스커트 밑에 쪽 쪽 뻗어 나오는 곧은 다리들, 퍽 힘차고 경쾌해 보인다.(p.193)

이태준은 꼼꼼한 퇴고와 그 의도의 구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글을 고친다고 해서 으레 화려하게, 유창하게, 자꾸 문구만 다듬는 것으로 아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면서, 애초의 발상과 주제의식, 즉 표현하려는 주체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문장강화』의 구체성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표6】의 실제 퇴고의 예문을 보여주면서, (1)용어, (2) 모순/오해, (3) 선명/애매, (4) 삭제, (5) 신선함, (6) 만족 등을 설명함으로써 퇴고의 원리와 단계를 이론이나 개념이 아닌 사례와 과정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과 체재는 기존의 독본과 차별되는 구체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작품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근본적인 성격과 지향이 이전 독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9) 상허학회 편, 『문장강화 외』, 소명출판, 2015.

<제4강 각종 문장의 요령> 역시 서술 전략으로서의 구체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제재가 선택되었더라도, 즉 특정 텍스트가 수록되었더라도 기존 독본류에서는 그 내용적-주제적 측면에서 취사선택된 반면, 강화류에서는 형식적-언어적 측면에서 선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우덕송」같은 글이 있다고 하자. 기존의 독본류에서는 소(牛)라는 소재가 인간에게 주는 여러 유익과 교훈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내용적-주제적 측면에서 선택하고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문장강화』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여기서는 <용어와 언어의 문제>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소(牛)라는 소재를 탁월하게 형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최서해의「담요」도 마찬가지다. 이윤재의『문예독본』에서「담요」는 곤궁하면서도 개인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소품이자 단편소설로 수록된 바 있다. 그런데『문장강화』의 담요는 초점이 다르다. "담요이야기를 발전시키는 데 담화들이 얼마나 사건 기록을 경제(經濟)시키고 행동을 비약시키는가."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독본과 강화에서 수록 작품이 중복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덜 중요하다. 오히려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 선정하고 있는지, 또 덧붙여 서술하고 있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즉『문장강화』에서는 기존의 독본과 달리 형식-언어의 작문학적 배치와 설명이 전경화(全景化)되고, 내용-주제의 문학적 배치는 후경화(後景化)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중심의 작문강화'가 문학을 사용하고, 문학을 있게 하고, 문학을 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는『문장강화』의 컨텍스트는 여전히 감안해야 한다.

이태준이『문장강화』를 쓸 당시만 해도 조선어의 문장 형성과 관련해 언어의 규범화와 표준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각종 민간 독본의 제재가 관찬 교과서에 수록되고, 조선어학회 회원이나 조선어 교원들의 문제제기(교수용어, 교수학습의 실상, 철자법 문제 등)가 교육 정책을 사이

에 두고 횡단・경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글쓰기는 특별한 기술을 지닌 작가들의 몫이었고, 일반인들은 최소한의 투식이나 '실용・간이(實用・簡易)'의 실용문 세계에 갇혀 있던 게 보통이었다. 당시 척독(尺牘)이나 연애 서간의 유행이 의미하는 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장강화』는 불특정 일반 독자층, 특히 조선어 과목이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조선어 감각을 상실하게 될 다수의 중학 이상의 학생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장강화』의 숨은 독자들은 그것을 '교과서 밖의 교과서'로 사용할 학생들로만 한정되지 않는 데 유의해야 한다. 보다 궁극적인 포석은 당대 문학인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강화』의 체재가 달라지지 않는 한 문인들을 겨냥한 내용이나 단원이 별도로 구성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문이 아닌 본문, 즉 본문을 설명하는 강화(講話) 부분에 녹여내는 수밖에 없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온 이른바 '『문장강화』의 모순'은 이 지점의 편향을 주목한 논리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체재 안에 일반 독자와 특정 독자(문필인)의 두 담당층을 포괄하려는, 혹은 포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치 지구의 한 곳에서 내행성(內行星)과 외행성(外行星)을 동시에 조망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인 것이 『문장강화』가 놓인 자리였다.

다음으로 실제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몇 편의 예문을 제외하고 『문장강화』의 예문은 해방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문과 수록 필자는 이전 『문예독본』의 전통 위에 놓인 것이다. 학생 예문을 제외한 작품의 내용과 필자를 보면 이점은 확실해진다. 더욱이 편지, 기사, 추도문 등의 실용적 양식을 포섭하고 있는 것도 이런 효과를 가중시킨다. 띄어쓰기, 문장 부호까지 서술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문장강화』의 구체성과 실제성이 어느 정도의 눈높이에서 시작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표7】 감각 예문

가을비(1) 가을이라 하면 누구나 달을 말하고 단풍과 벌레 말하나 비를 말하는 이는 적다. 시인들까지 그랬다. 달과 단풍이나 벌레 소리에는 들어차게 읊었어도 가을비 소리를 읊은 시인은 적다. 나는 시인이라면 달보다 단풍보다 벌레 소리보다 이 쓸쓸한 가을비 소리를 읊으리라. 얼마나 가을비 소리는 쓸쓸한 소리인가. 얼마나 가을다운 소리인가. 가을은 쓸쓸한 시절이다. 가을비 소리가 더욱 그렇다.(어떤 학생의 작문, p.214)
가을비(2) 장독들이 비를 맞고 섰다. 그것들이 어찌 시원해 보이는지 지나다 말고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았다. 빗발은 고르지 않다. 어떤 것은 실같이 가늘고 어떤 것은 구슬같이 무거운 것이 떨어져 깨어진다. 이런 무거운 빗발에 맞아 떨어짐인가, 어디서 버들잎 하나가 날아와 장독 허리에 사뿐 붙는다. 버들잎은 '나비인가' 하리만치 노랗게 단풍이 들었다. 벌써 낙엽이었다. 비는 시름없이 내리어 장독들도 버들잎도 묵묵히 젖을 뿐, 나는 손끝에 뛰어오는 몇 방울 빗물에 얼음 같은 차가움을 느끼며 따스한 방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다.(어떤 학생의 작문, p.214)

【표7】처럼 예문을 통한 감각의 실감은 글쓰기 감각에 대한 훈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리얼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이는 '좋은 글'의 준거를 스스로 체득하거나 '좋은 글'의 상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서술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공통감각을 이론적으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눈이나 글로 한번 실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실제성의 부수적 효과는 다른 곳에도 있다. 양식을 나열하고,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그간의 신문학을 계열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어 문장의 구체적・실제적 활용으로부터 조선 문학의 역사가 뚜렷해지는 효과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다. 교과서와 달리 연습문제가 없다 뿐이지 교과서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성이 높은 '교과서 밖의 교과서',『문장강화』의 성취는 이러한 서술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문학강화'가 아니고, '문장강화'일까? 이는 이윤재의『문예

독본』이 왜 '문학독본'이 아니고 '문예독본'이었나를 묻는 방식과 흡사하다. 직접적으로는 이광수가 <조선문단>에 연재한 「문학강화」(1925)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태준은 '문학 중심의 작문강화'로 『문장강화』로 썼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내용(학)을 지키기 위한 방법(학)의 활용으로, 이태준의 「패강냉」(1938.1)이 보여준 한문 쓰기 전략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문학은 물론 일상어, 비문학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윤재가 『문예독본』을 우직하게 밀고 나갈 당시 만해도 '문학독본'의 다른 이름인 『문예독본』에서 문학은 역사, 지리 제재를 동원하면서도 내용학 정립을 위해 가급적 다른 분과학문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이태준이 처한 당시 상황은 조선 문단, 조선 문학, 조선어 과목 자체의 명운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학, 작문과 수사학의 내용을 망라하여 끝까지 국가와 민족어를 상상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다.[10]

「패강냉」은 식민지 조선의 암울한 상황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운명을 함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태준의 소설 「패강냉」(1938.1)은 조선어 교육 폐지를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즉 소설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제3차 조선 교육령의 '국어상용화' 정책에 따라 조선어를 필수과목에서 수의(隨意)과목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조선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12]

---

10) 그러나 해방 후 상황은 문화적,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고전을 발명할 필요가 높던 시기였다. 특히 강력한 교육적 영향력 아래 '작문중심의 문학강화'로 『문장장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작문의 방법 외에도 작가작품의 정전화가 이루어졌다.

11) 한만수, 「이태준의 「패강냉」에 나타난 검열 우회에 대하여」, 『상허학보』19집, 상허학회, 2007, pp.314-315.

12) 제3차 조선교육령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보통고등학교는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였다. 둘째 4년제

교육령 개정 후로는 조선어가 수의과목이 되었으므로 학무당국의 승인이 없다하더라도 교장의 직권으로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쯤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학교형편에 따라 상급학교 입학시험에 가장 중요한 국어시간 같은 것을 늘리고, 조선어 시간을 줄이는 곳도 많은 모양입니다. 실제에 있어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데는 조선어는 그다지 필요치 아니하므로 자연 국어에 치중할 것입니다.[13]

1월 25일(화)

이번에「浿江冷」에는 시시비비가 많다. 나는 애초부터 소설의 체격을 갖출 수 있기를 단념하고 쓴 제재이다. 다만 오늘에, 이런 말과 이런 글자로 글을 쓰는 우리의 어두어지는 심사를 어설프게나마 나타내보고 싶었던 것뿐이다.[14]

결국 경성부 학무과장의 인터뷰 내용이 아른거리던 시절의 이태준의 저작에서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혹은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의 심경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문장강화』의 다층적 포석과 실천적 의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간취해야 한다. 조선어로 편하게 글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은「패강냉」같이 소설의 형식 안에 한문 쓰기와 동양 고전의 함축적 수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문장강화』같이 조선어 글쓰기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과 읽을거리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문장강화』의 집필 동기는 조선 문학 이전에 조선어 자체

보통학교는 점차 6년제로 한다. 셋째 공립학교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학하게 한다. 넷째 사범학교에, 일본인의 소학교 교원 양성기관과 한국인의 보통학교 교원 양성기관을 통합한다. 다섯째 교과서, 교과과정, 교수요목 등에 조선어 외에는 한일 양국인의 것을 동일하게 한다. 여섯째 조선어를 수의과(隨意科)로 한다. 이후 조선어 과목 폐지가 적시된 것은 1943년 제4차 교육령이다.

13)「조선어 시간 오할 감축」,『매일신보』, 1939.5.7.

14) 이태준,「작가일기, 이상견빙지, 기타」,『삼천리문학』2집, 1938.4, p.174.

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패강냉」의 슬픈 예감과 소설적 정조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패강냉」의 '일모도원', '이상견빙지'의 심정이야말로 『문장강화』의 구체성과 실제성을 추동한 숨은 동력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패강냉」에서 현의 친구 박이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설정이었던 셈이다.

『문장강화』는 식민지 조선의 문화가 암울해지는 상황에서 조선어의 운명을 '문학 중심의 작문 강화'로 밀고 나간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것의 이념적 지향과 문학사적 전거의 제시는 조선 문화와 그 토대에 해당하는 조선어의 운명이 절박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문장강화』 안에서 구체적인 작법과 작품의 정리 자체가 필요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어설프게나마' 서술하였다는 겸양보다 '교교불군(矯矯不群)의 야심'으로, 즉 표일(飄逸)하게 실천한 '작문 이상의 작문책', '작문에 미달하고 작문을 초과하는 글쓰기(문장 정신) 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다.

『문장강화』가 최고의 문장정신으로 비유한 '교교불군(矯矯不群)'과 '표일(飄逸)'의 의미는 사공도(司空圖)[15]의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문장강화』 <제8강 문체에 대하여>에서는 유독 이런 동양의 시격(詩格), 시의 의경(意境)과 관련된 문구들이 많은데, 이는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의 『新美辭學』 등 일본 근대 수사학이 수용되면서 그 설명의 기조가 동양 고전 수사학의 용어와 용법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15) 사공도(司空圖, 837-908)는 당나라 말의 시인으로, 그의 대표적 詩 작품인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은 시의 의경(意境: 시심을 마음속에 묘사하는 것)을 24품(品)으로 나누어, 각 품에 4언의 운어(韻語)에 12구를 형성하여 모두가 288구로 장문의 시작을 하였는데 각 意境의 품격을 상징적이며 해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시는 당나라 말기에 으뜸으로 꼽혔으며, 특히 고결한 기품이 있기로 알려져 오고 있다.

1 “평범한 사단(事端)을 위곡(委曲)하게 이끌어 들려준다. 유머러스한 미소를 주는 덕이 있다.”(p.249)
2 “간결은 전아한 고치를 지니는 것이며 절장이 길어선 정에 위곡(委曲)하다.”(p.269)
3 “그러나 만취일수(萬取一收), 정채(精彩)가 돋고, 박언정오(薄言情悟)로 소식(消息) 지궁(至窮)함이 있지 않은가?”(p.270)
4 “예술가의 문장은 생활하는 도구는 아니다. 창조하는 도구다. 항시 교교불군(矯矯不群)하는 야심자다.”(p.278)

‘위곡(委曲)’은『이십사시품』의 열일곱 번째 용어로, 작품 내용의 자세하고 소상함을 의미하며, 여섯 번째 용어인 ‘전아(典雅)’는 속되지 않게 문장의 법도를 지키는 품격을 일컫는다. ‘만취일수(萬取一收)’는 만 가지에서 단 하나를 취한다는 뜻으로, 플로베르(Flaubert)의 일물일어(一物一語)에 조응하지만 여기서는 플로베르의 적확성을 의미하는 뜻보다는 열두 번째 용어인 ‘함축(含蓄)’, 즉 깊은 뜻이 집약되어 간직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본래 표일(飄逸)은『이십사시품』에 소개된 스물두 번째 용어로, 작품의 품격이 청신하고 뜻이 고원함을 일컫는데, 교교히 무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16] 훌륭한 문장가의 이상적 형태, 즉 문필가의 이상으로 보면, 규범을 제시하면서도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문장가를 지시한『문장강화』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다.

『문장강화』는 일반인 독자를 염두에 두는 첫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편을 통틀어 문장가 일반을 자주 언급한다. ‘문장가’는 때론 ‘훌륭한 문장가’를 지향할 때 동원하기도 하며, 급기야는 ‘문장가들의 언어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한다는 점과 언문의 통일과 표준어로 써야 할 의무를 운운하기에 이르

16) 안대회,『궁극의 시학-스물네 개의 시적 풍경』, 문학동네, 2014.4.

지만 이러한 용어를 대체하는 것으로 '작가'라는 말을 거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문장강화』가 후반부로 가면서 일반 독자보다 문학인, 그것도 교교함과 표일을 강조하는 이상적 형태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특히 그의 문체론이 전거와 용어 면에서 동양 수사학의 그것을 차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어와 조선문단 둘러싼 컨텍스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가령, 1939년 10월 결성된 친일 성격의 <조선문인협회>의 성명서를 보면, 문필가의 의무와 상황인식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 ……우리들 문필(文筆)에 종사(從事)하는 자(者)는 무엇보다도 문필(文筆)에 의(依)하야 그 책임(責任)을 다 하여야 될 줄 압니다. 이에 조선(朝鮮)에 있어서 진실(眞實)로 시국(時局)의 중대성(重大性)을 인식(認識)하는 동지상합(同志相合)하야 '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를 결성(結成)하고 흥아(興亞)의 대업(大業)을 완성(完成)시킬 황군적(皇軍的) 신문화(新文化) 창조(創造)를 위하야 용왕매진(勇往邁進)코저 맹세(盟誓)하는 바입니다.[17]

성명서는 문인 및 문필가가 황군적 신문화 창조에 매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장강화』에 나온 문장가 및 문필인은 언문의 통일과 표준어로 써야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며, 조선어 글쓰기, 조선어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에 매진해야하는 이들이다. 즉 일반인을 향한 능숙한 필자 만들기는 『문장강화』의 뚜렷한 한 축이면서도 개인 만들기이지만, 전문가를 향한 문필가 만들기, 즉 교교불군의 야심가에게 주는 제언 또한 『문장강화』의 뚜렷한 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조선의 아름다움까지도 고양할 수 있는 '표일'의 미학을 이태준은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

17) 「조선문인협회 금일 성대히 결성식」, 『동아일보』, 1939.10.30.

결국 전문 작가나 문예적 글쓰기를 지향하지는 않았으나 문장가, 문필인의 의무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소명의식으로 고양된 이태준의 문장정신을 알 수 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문일치와 표준어로 조선어 문장 쓰기를 구현해야할 '능숙한 필자'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문이 문학작품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 행간에 등장하는 이태준의 의식의 편린을 종합할 때, 그가 염두에 둔 '능숙한 필자'의 구체적 상은 '문학자'다. 그것도 교교불군의 야심자로서의 문학자다. 능숙함과 전문성의 떨림/쏠림이야말로 선행 연구가 주목했던『문장강화』에 드러난 '모순'의 실체다. 즉 층위가 다른 두 가지 상의 혼종. 능숙함은 일반인들의 의사소통 및 표현 체계가 지향해야할 목표다. 전문성은 직업 문필가의 덕목이다. 따라서 언문일치-표준어 의식-작문·수사학으로 이어지는 일반인들에게는 능숙함을, 즉 능숙한 필자를 지향하도록 한다. 그러면서도 언문일치-표준어 의식-문학으로 이어지는 문학자들에게는 전문성, 특히 언어와 문장의 전문성과 그것을 위한 소양과 의무를 주문하는 것이 이 텍스트의 핵심인 셈이다.

Ⅳ. 결론을 대신하여

이태준의『문장강화』는 신문학의 물질성을 토대로 성취한 근대 조선어 글쓰기의 결절점(結節點)을 보여준다. 동시에 근대 작문과 문학이 한 뿌리의 두 가지로 추구했던 사회적·문화적 실천의 텍스트였다. 더욱이 해방 전후를 관통하면서 이 텍스트의 계보학적 위상과 의미는 증폭되었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태준의 문제의식은『문강강화』의 체재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언어와

문장에서 시작해서 말짓기-글짓기로 이어진 다음, 다양한 문종, 양식, 요령을 경유한 다음 종국에 이르러서는 문체와 문장에 다다른다. 말하자면『문장강화』는 작문을 통해 문학을 이야기하고, 문학을 정리하고, 조선어 운명을 대비했던 텍스트였다. 그러므로 후경화된 문학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그 의미가 적다고 하거나 실용적·논리적 글쓰기의 부재를 들어 비판하는 것은 이 책의 체재와 집필 동기를 감안하지 않는 평가에 속하는 것이다.

이태준의『문장강화』는 일본의 작문 및 수사학을 참조하고, 조선의 근대 작문이 지나온 신문학의 전통과 계보를 집대성하였다. 근대 작문의 형성과정과 계보가 선명한 것이야말로『문장강화』의 특징이자 작문학적 의미이다. 말하자면, 1910년대 최남선의『시문독본』이 국문체 이전의 '시문체(時文體)'를 통해 사상, 국역(國譯), 근대 지(知) 일반의 범위를 획정하고, 문체 모형을 제안한 이래,『중등조선어작문』같은 작문서는 1920년대 조선어 작문 안에 일상과 실용의 영역을 담아내고, 개성과 표현의 문학 영역을 포섭하고, 방법학의 결여를 보완할 수사학을 수용한 절충 혼합 모형을 만들어내는 데 까지 이르렀고, 이윤재의『문예독본』은 어문민족주의 이념이 만든 문학 교재의 원형이자 1930년대 근대 작문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태준의『문장강화』는 이러한 근대 작문의 전통과 계보 안에 더 적실한 평가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1930년대의 역동적인 조선어 환경 속에서『문장강화』는 일본 작문서 및 수사학 이론을 참조하여 조선어 규범을 제시하고, 일상어/실용문에서 문학어/문예문의 경로를 상상하며, 글쓰기 문범을 제시함으로써 신문학의 계열화를 도모한 문학 중심의 작문 책을 집대성하였다. 그러므로 문학 비중이 높고 창작 편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작문미달'의 한계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작법과 요령을 넘어 문장정신으로 나아간 지점에 이르러서는 '작문 초과'의 위상을 지닌다. 이는 오늘날의 글쓰기

환경, 즉 자본과 실용의 기능적 글쓰기에 반성의 지점을 제공하는데, 특히『문장강화』의 문장 정신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현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비판적 글쓰기의 복원을 함축하며, 인지주의나 구성주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준다.

『문장강화』의 떨림과 쏠림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진행형으로 되풀이되고 있는지 모른다. 대학글쓰기는 가치와 실용의 모순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학 글쓰기 교육의 기조를 놓고, 개성적 글쓰기에 둘 것인가, 논리적 글쓰기에 둘 것인가를 둘러싼 쟁점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작문 이론의 남용이 구체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작문의 실제성이 테크니컬 글쓰기에 한정되지 않는 방향은 불가능한가? 과연 개성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글쓰기는 과연 불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계속되는 한『문장강화』는 새롭게 읽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구자황・문혜윤 편,『근대 독본 총서』(전10권), 경진출판, 2015.
기쿠치 칸[菊池寬],『文章讀本』, 모던일본사, 1937.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文章讀本』, 中央公論社, 1934.
사카이 도시히코[堺 利彦],『文章速達法』, 讀文社, 1915(講談社 學術文庫, 1982)
상허학회 편,『문장강화 외』, 소명출판, 2015.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 島村瀧太郎],『新美辭學』, 早稻田大學 出版部, 1902/1922.
이가라시 치카라[五十嵐力],『文章講話』, 1908/1915.
이태준,『문장강화』, 문장사, 1940.

2. 논문 및 단행본

구자황, 「21세기 '문장강화'의 친숙함과 새로움--『고종석의 문장』을 읽고」, 『대학작문』 10호, 2015.2.

_____, 「은유와 환유에 대하여」,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9.

김욱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문혜윤, 『문학어의 근대』, 소명출판, 2008.

_____, 「조선어 문장 형성 연구의 향방」, 『상허학보』 제42집, 2014.10.

박진숙, 「이태준의 언어의식과 근대적 글쓰기의 장(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3호, 2011.

백지은, 「'문학적 문체'의 개념과 문체 연구의 위상 정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113호), 2008 겨울호.

_____, 「근대 어문의 이념을 향하여-언어이론으로서의 『문장강화』」,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2015.4.

류수연, 「박태원의 『중등작문』과 글쓰기 방법론」, 『근대서지』 제9호, 2014.6.

안대회, 『궁극의 시학-스물네 개의 시적 풍경』, 문학동네, 2014.4.

이재선, 「개화기의 수사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69.

이혜령, 「이태준 『문장강화』의 해방 전/후」,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이한정,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문장독본』과 이태준의 『문장강화』」, 상허문학연구회 발표문(미간행), 2013.11.

한만수, 「이태준 「패강냉」에 나타난 검열 우회에 대하여」, 『상허학보』19집, 상허학회,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Genealogy of Modern Writing and *Lectures on Sentences* by Lee Tae-jun

Gu, Ja-Hwang

The basic concern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ext systems,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Lectures on Sentences* and the contexts surrounding them. *Lectures on Sentences*(1941) by Lee Tae-jun is a problematic text to connote the fierce linguistic and cultural crossing and competition between the empire and the colony throughout the overall formation of modern writing.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genealogical research on the modern writing of Korea through the process and pattern of Lee's writing in Joseon language moving toward the formation of modern writing in Korea.

As previous studies pointed out, his *Lectures on Sentences* consulted some Japanese writing books and reflected the situation of no freedom from the retranslation of modern Japanese writing in a broad sense. Howeve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his *Lectures on Sentences* independently designed the establishment of sentences in Joseon language by consulting the methods(methodologies) and all sorts of systems of modern Japanese writing. *Lectures on Sentences*, which realized the specificity of example sentences and the reality of methods, clearly has some differentiating points from Japanese writing and the old basic readers in that it was published when public education had difficulties with establishing sentences in Joseon language and setting norms for their literary expressions during the colonial days and that it consistently emphasized the criteria and achievements of sentences in Joseon language. It, therefore, deserves fair assessments in the venue of linguistic and cultural crossing and competition and especially in the perspectives of Korean genealogy of modern writing and the compilation of modern writing as well as the old assessments in the literary history.

The present study cited specificity and reality as parts of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narration strategies of *Lectures on Sentences*. Specificity is a major narration strategy of the book in that it offers the know-how of model composition to general readers and also fills up the meanings between the lines, which used to be conveyed only through the enumeration of texts in basic readers. That narration strategy, which considered the level of learners, helped common readers understand the writing process and guided them through the shortcut of obtaining know-how, thus solidifying the popular appeal of *Lectures on Sentences*. Its discussions about "revision" present a typical case and show such detailed and desperate level of discussion that it can be adopted as a traditional revision strategy in today's writing education. As for reality, it, unlike the old basic readers, moved the writing arrangement and explanation of form-language to the foreground and the literary arrangement of content-theme to the background and offered details about spacing and sentence marks as well as practical forms including letters, articles, and memorial writings. It derived from the narration strategy of *Lectures on Sentences*, which tried to fulfill the hidden desire of Joseon's literary figures by constantly emphasizing the literary writing of individuality and Gyogyobulgun everywhere within the text and placing "literature-based lectures on writing" over the desire for practical writing among common readers.

Lectures on Sentences by Lee Tae-jun shows the nodes of modern writing in Joseon language based on the materiality of new literature and, at the same time, is a text of social and cultural practice sought after by modern writing and literature from a single origin. Furthermore, its genealogical status and significance amplified before and after Liberation with its influences remaining even today. The present study thus stressed as a conclusion the meanings beyond the criticisms that it was nothing but a mere compilation of various basic readers, textbooks, and writing books in the early days of modern times for commercial purposes and that it faced a logical contradiction within the text. The study highlighted that it had "completeness" as a book even though it started as a series in a magazine, could have its "independence"

recognized by focusing on the prose-based sentence writing in Joseon language, and contributed to the “traditionality” of modern writing by refining the models of old basic readers in a sophisticated manner and expanding them in a rich fashion.

Key Word : modern writing, textbook, basic reader, *Lectures on Sentences*, rhetoric, Lee Tae-jun

구자황
소속: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학부 교수
전자우편: pakua@sookmyung.ac.kr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